

## 위생담당 공무원의 직무실태와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에 대한 태도

손성호, 감신, 박재용, 박기수\*, 한창현, 차병준\*\*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대경대학 행정계열\*\*

### Abstract

#### Sanitary Officials' Affairs State and Attitude about Transfer of Sanitary Affairs Control to Health Center

Sung Ho Son, Sin Kam, Jae Yong Park, Ki Soo Park\*, Chang Hyun Han,  
Byung Jun Cha\*\*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aculty of Public Administration, Taekyeung Colleg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contents of affairs and job satisfaction of sanitary officials at sanitary department and health center, and to assess attitude about transfer of sanitary affairs control to health center and to devise improving program of sanitary affairs.

Four-hundred and fifty-five sanitary officials were sent a postal questionnaire and eighty-four percent completed and returned the questionnaire (382 person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The major sanitary affairs performed by sanitary officials were permission and filing of restaurant business (15.1%),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that (14.4%).

Sanitary officials answered that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insanitary and/or subquality foods, planning of food sanitary administration, and

permission and filing of restaurant business were their important affairs.

They replied that the most serious problem of sanitary affairs was 'lack of contribution to the public health' (40.9%), 'putting first in supervision'(26.4%), and 'lack of personnels' (19.1%),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improve sanitary affairs was the substantial inherent affairs. And they indicated that the agency to be desired for sanitary affairs control was the sanitary department (51.6%), the health center (25.4%).

For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affairs, 29.1% of sanitary officials felt proud, 59.6% felt overwork, 59.3% hoped transferring to other worksite and the major reason of transferring was lack of promotion opportunity in officials of sanitary department, disciplinary punishment and social corrupt view in officials at health center.

The 41.1% of sanitary officials at sanitary department didn't know that sanitary affairs had been stated as affairs of the health center in Community Health Act. After transferring affairs control to the health center, 14.4% of them felt more proud of affairs but 20.0% less proud, 23.2% more satisfactory but 22.4% more dissatisfactory, and 64.8% answered that sanitary affairs did not change.

The results indicate that sanitary affairs should be changed to supervise and control insanitary and/or subquality foods, so that they play an important role at health promotion, and make sanitary officials feel proud at their own work.

*Key words : sanitary officials, affairs state, attitude, transfer of sanitary affairs control*

## I. 서론

정부는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을 제정하여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위생용품 위생관리,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관리, 유통식품 위생관리, 식품접객업소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생담당 공무원은 주로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공중위생분야와 식품위생분야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중위생분야에서는 공중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에 대한 업무와 위생용품의 생산·관리, 영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공중위생관리 등

의 업무를 담당하며(보건복지부, 1996), 식품위생분야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 관리,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유통식품 위생관리,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등의 식품의 안전성 관리 업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무허가, 심야·퇴폐·변태업소 관리, 퇴·변태 등 불법접객영업 특별합동단속 등의 식품접객업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7;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1998).

국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는 등 위생분야의 영역이 증대되고 있으나 위생계 공무원은 직접적인 위생업무 이외에 단속 등 다른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유의 위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국민보건 향상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이인수 등, 1992). 또한 위생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시·군·구 위생과와 보건소가 행정상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세균성 이질의 집단적인 발생 등으로 위생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998년 3월에 발생한 신대초등학교 세균성 이질 역학조사(천병렬, 1998)에 의하면, 향후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평소에 보건소마다 역학조사반을 미리 편성해 두어 매년 3월초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역학조사의 실습 기회를 갖도록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와 시·군·구 위생과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이인수 등(1992)이 지적하였듯이 공무원 중 보건직이 69.0%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생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보건소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생업무는 초창기부터 1976년까지 보건소에서 관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시·군·구의 위생과에서 관장하여 왔다(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8).

1995년 기존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보건위생 행정체계를 이룩하고자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업무를 다시 보건소로 환원하여 지역보건법 제 9조에 보건소의 업무로 명시하였다(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8). 지역보건법 제 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1998)의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하면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의 개선방안으로 보건소의 기구개편을 통한 합리적인 조직관리가 바람직한데, 그 하나로 위생업무를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영남대학교 의과대학, 1993).

그러나 시·군·구의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문제는 자치단체 의회에서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체 조사에 의하면 1998년 11월 현재 대구광역시의 경우 아직 구·군의 위생

과를 보건소와 통합한 기초자치단체는 없고 다른 광역시·도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구의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한 곳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광역시·도, 시·군·구 위생과에 근무하는 위생계 공무원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위생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생계 공무원들의 직무실태와 직무만족도, 위생과의 보건소 이관에 대한 태도, 위생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대구광역시청 및 경상북도청, 관내 시·군·구청에 소속된 위생담당 공무원 전원 289명과 1998년 11월 현재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된 전국 27개 보건소의 위생담당 공무원 16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8년 12월에서 1999년 1월 사이에 우편조사를 하였다. 광역시·도청과 시·군·구청에 소속된 위생담당 공무원은 253명(응답률 87.5%) 이, 보건소의 위생담당 공무원은 129명(응답률 77.7%)이 각각 응답하여, 총 38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내용에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실태, 위생업무에 대한 개선 방안, 직무만족도, 그리고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였다. 이때 직무실태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위생업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부 시·군·구청 위생과의 사무분장표를 근거로 위생업무를 1) 위생민원창구 업무, 2) 주민신고 열서제 및 신고보상금, 3) 공중위생의 종합기획, 4)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5)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6) 이·미용사 면허에 관한 사항, 7) 무허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8)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9) 공중위생업소 행정소송, 10)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 11)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12) 공중위생 관련단체 지도, 13) 기타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4) 식품위생행정의 종합기획, 15)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16)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17) 조리사와 위생관리인에 관한 사항, 18)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19)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20) 식품위생업소 행정소송, 21)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22)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관리, 23) 식품진흥기금 관리, 24) 모범음식점 지정 등 관리, 25) 집단급식소 신고 및 관리, 26) 식품위생 관련단체 지도, 27) 식품자동판매기, 세탁업 지도, 28)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28가지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위생과와 보건소에 근무하는 위생담당 공무원의 직무실태, 위생업무에 대한 개선 방안, 직무만족도, 그리고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에 대한 태도를 근무처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검증은 카이-제곱 검정, t-test, 분산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위생담당 공무원의 근무처별 직무실태

대상자의 근무처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표 1>과 같다. 총 382명중 남자가 79.8%, 여자가 20.2%였으며, 보건소에서의 여성 위생업무 담당자가 33.3%로 제일 높았다. 연령은 40-44세가 28.8%로 가장 많았는데, 보건소 근무자는 34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95.0%가 기혼이었으며, 대졸이상 33.5%, 전문대졸 36.1%, 고졸 30.4%였다. 직렬은 보건직 72.3%, 별정직 18.6%, 행정직 5.4%의 순이었다. 직급은 8급이하가 52.6%이었는데, 보건소와 시·군·구청 근무자는 8급이하가 50%가 넘는 반면, 광역시·도청은 23.1%에 불과하였다. 위생업무 경력은 5년에서 10년 사이가 37.4%로 가장 많았고, 2년미만 23.0%, 2년에서 5년사이 20.4%의 순이었다. 면허·자격을 소지한 위생업무 담당 공무원은 56.8%였는데, 보건소와 광역시·도청 위생담당 공무원은 각각 68.2%와 73.1%가 면허·자격을 소지한 반면, 시·군·구청 공무원은 48.5%만이 면허·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생담당 공무원의 하루 평균 업무시간은 8.9시간이었으며, 위생업무 담당시간은 7.4시간으로 하루 업무 중 위생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의 비율은 83.3%였다. 위생업무 담당시간은 보건소 공무원이 7.7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시·도청 공무원이 6.7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p<0.05$ ). 하루 업무 중 위생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의 비율도 보건소 공무원이 85.3%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도청이 81.2%로 가장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위생업무를 28가지로 세분하여 하루 업무시간 중 평균적으로 해당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의 비율을 기입하도록 한 결과,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가 업무시간의 15.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14.4%,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6.3%,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6.2%,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5.9%,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5.9%,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5.8%의 순으로 이 7가지 업무가 전체 위생업무의 약 59.6%를 차지하였다.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업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업무,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행정의 종합기획 업무에 대한 투입시간 비율은 근무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업무 투입시간 비율은 보건소가 18.4%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도청이 2.4%로 가장 낮았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업무에 대한 투입시간 비율은 보건소가 8.5%로 다른 근무처에 비하여 높았다. 반면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과 식품위생행정의 종합기획 업무에 대한 투입시간 비율은 광역시·도청이 다른 근무처에 비하여 높았다( $p<0.05$ , 표 3).

<표 1>

위생담당 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보건소	시·군·구청	광역시·도청	계
<b>성*</b>				
남	86( 66.7)	194( 85.5)	25( 96.2)	305( 79.8)
여	43( 33.3)	33( 14.5)	1( 3.8)	77( 20.2)
<b>연령(세)*</b>				
≤34	43( 33.3)	52( 22.9)	-	95( 24.9)
35-39	33( 25.6)	63( 27.8)	6( 23.1)	102( 26.7)
40-44	34( 26.4)	64( 28.2)	12( 46.2)	110( 28.8)
45≤	19( 14.7)	48( 21.1)	8( 30.7)	75( 19.6)
<b>결혼상태</b>				
기혼	122( 94.6)	215( 94.7)	26(100.0)	360( 95.0)
미혼	7( 5.4)	12( 5.3)	-	19( 5.0)
<b>학력</b>				
고졸	43( 33.3)	68( 30.0)	5( 19.3)	116( 30.4)
전문대졸	52( 40.3)	79( 34.8)	7( 26.9)	138( 36.1)
대졸이상	34( 26.4)	80( 35.2)	14( 53.8)	128( 33.5)
<b>직렬*</b>				
보건직	98( 76.0)	159( 70.0)	19( 73.2)	276( 72.3)
행정직	4( 3.1)	14( 6.2)	3( 11.5)	21( 5.4)
별정직	19( 14.7)	49( 21.6)	3( 11.5)	71( 18.6)
기타	8( 6.2)	5( 2.2)	1( 3.8)	14( 3.7)
<b>직급*</b>				
6급이상	23( 17.8)	31( 13.7)	9( 34.6)	63( 16.5)
7급	40( 31.0)	67( 29.5)	11( 42.3)	118( 30.9)
8급 이하	66( 51.2)	129( 56.8)	6( 23.1)	201( 52.6)
<b>위생업무경력(년)</b>				
<2	39( 30.2)	46( 20.3)	3( 11.5)	88( 23.0)
2-5	30( 23.2)	46( 20.3)	2( 7.7)	78( 20.4)
5-10	42( 32.6)	90( 39.6)	11( 42.3)	143( 37.4)
10 <	18( 14.0)	45( 19.8)	10( 38.5)	73( 19.2)
<b>면허·자격유무*</b>				
없음	41( 31.8)	117( 51.5)	7( 26.9)	165( 43.2)
있음	88( 68.2)	110( 48.5)	19( 73.1)	217( 56.8)
<b>계</b>	129(100.0)	227(100.0)	26(100.0)	382(100.0)

\* p<0.01

〈표 2〉 위생담당 공무원의 일평균 업무시간과 위생업무 담당시간  
단위 : 시간(평균±표)

	보건소 (n=129)	시·군·구청 (n=227)	광역시·도청 (n=26)	계 (n=382)
일평균업무시간(A)	9.0± 1.2	8.9± 1.5	8.4± 1.3	8.9± 1.4
위생업무시간(B)	7.7± 1.8	7.3± 1.8	6.7± 1.7	7.4± 1.8*
B/A * 100(%)	85.3±15.4	82.5±17.3	81.2±20.1	83.3±16.9

\* p<0.05

〈표 3〉 위생담당 공무원의 상위 10개 위생업무 투입시간 비율  
단위 : %(평균±표준편차)

순위업무명	보건소 (n=129)	시·군·구청 (n=227)	광역시·도청 (n=26)	계 (n=382)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18.4±18.5	15.0±21.7	2.4± 5.9	15.1±20.0**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12.8±12.7	15.3±20.0	13.2±16.1	14.4±17.8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8.5±11.6	5.2± 9.1	6.3±10.9	6.3±10.2*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6.2±10.2	6.4±12.3	4.3±15.5	6.2±11.9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5.4± 8.4	6.4±11.0	3.6± 7.9	5.9±10.1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0± 7.9	6.1±11.1	12.1±14.4	5.9±10.6**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5.7± 9.4	6.3±14.1	2.5± 6.5	5.8±12.4
위생민원창구 업무	4.1±12.9	4.1±15.1	5.1±17.9	4.2±14.6
무허가 식품위생 업소 지도·단속	3.2± 6.3	4.5± 7.3	2.1± 4.9	3.9± 6.9
식품위생행정의 종합기획	3.6± 6.5	3.0± 6.4	12.5±17.4	3.8± 8.1**

\* p<0.05, \*\* p<0.01

위생업무를 28가지로 세분하여 제시하고 이 중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를 5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 결과, 1순위에서 5순위의 누적 백분율로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업무가 83.8%,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 56.3%,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업무 52.9%,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47.8%, 식품위생의 종합기획 업무 35.9% 순이었다. 이들 업무별 1순위 빈도를 보면 1순위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업무가 44.1%라고 응답하였으며, 식품위생의 종합기획 업무 13.4%,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업무 13.2%,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 7.6%,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4.5%순이었다(표 4).

〈표 4〉 위생담당 공무원의 위생업무 주요 순위 5가지

단위 : %

업무명 및 순위	보건소 (n=129)	시·군·구청 (n=227)	광역시·도청 (n=26)	계 (n=382)
<b>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b>				[83.8]
1 순위	36.7	48.0	46.2	44.1
2 순위	16.4	12.3	15.4	13.9
3 순위	10.9	14.5	7.7	12.9
4 순위	10.2	5.7	3.8	7.1
5 순위	5.5	5.3	11.5	5.8
<b>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b>				[56.3]
1 순위	10.9	5.7	7.7	7.6
2 순위	15.6	11.5	19.2	13.4
3 순위	18.8	12.8	7.7	14.4
4 순위	10.2	13.2	3.8	11.5
5 순위	10.9	7.9	15.4	9.4
<b>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b>				[52.9]
1 순위	15.0	13.2	3.8	13.2
2 순위	18.9	15.0	19.2	16.6
3 순위	11.0	14.1	-	12.1
4 순위	7.1	7.5	3.8	7.1
5 순위	3.1	4.8	-	3.9
<b>무허가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b>				[47.8]
1 순위	5.5	4.4	-	4.5
2 순위	14.1	15.9	7.7	14.7
3 순위	10.9	4.4	11.5	7.1
4 순위	10.9	14.1	19.2	13.4
5 순위	8.6	8.8	-	8.1
<b>식품위생행정의 종합기획</b>				[35.9]
1 순위	13.4	11.5	30.8	13.4
2 순위	7.9	7.0	-	6.8
3 순위	5.5	7.5	11.5	7.1
4 순위	2.4	4.8	3.8	3.9
5 순위	6.3	4.0	3.8	4.7

[            ] 안의 수치는 1 순위에서 5순위까지의 누적 %임.

위생담당 공무원이 생각하는 위생업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40.9%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위생업무가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미약하다고 응답하였고, 26.4%는 위생업무가 단속업무위주라 하였으며, 19.1%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위생업무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유 위생업무의 충실이 70.2%로 가장 높았고, 인력의 보충이 14.1%, 보건의생과로의 조직개편이 12.8%였다.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데 대한 태도를 알아본 결과, 51.6%



가 시·군·구 위생과에서, 25.4%는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나머지는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고 하였다(표 5).

〈표 5〉 위생담당 공무원의 위생업무의 주요 문제점, 위생업무 개선방안 그리고 바람직한 위생업무 관장기관

	단위 : %			
	보건소 (n=129)	시·군·구청 (n=227)	광역시·도청 (n=26)	계 (n=382)
<b>위생업무의 문제점</b>				
국민건강과 직접적 연관 미약	41.9	40.0	42.3	40.9
단속업무 위주	19.5	30.0	30.8	26.4
인력부족	24.0	17.2	11.5	19.1
없다	5.3	8.4	7.7	7.3
기타	9.3	4.4	7.7	6.3
<b>위생업무개선에 가장 중요한 것</b>				
고유 위생업무 충실	65.9	70.5	88.6	70.2
인력보충	16.3	14.1	3.8	14.1
보건위생과로 조직개편	15.5	12.3	3.8	12.8
기타	2.3	3.1	3.8	2.9
<b>바람직한 위생업무 관장기관</b>				
시·군·구 위생과	50.4	52.4	50.0	51.6
보건소	25.6	25.1	26.9	25.4
어느 곳이든 상관없음	24.0	22.5	23.1	23.0
계	100.0	100.0	100.0	100.0

수행하고 있는 위생업무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응답한 위생담당 공무원은 29.1%였으며, 못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14.1%였다. 위생담당 공무원의 12.0%와 47.6%가 타 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매우 많다, 많다고 각각 응답하여 전체 59.6%가 타 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보건소 근무자의 76.0%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 시·도청 근무자는 26.9%만이 많다고 하여 근무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타 부서로 전직할 의사는 23.8%가 매우 많다, 35.5%가 많다고 응답하여 전체 59.3%의 응답자에서 전직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근무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표 6).

타부서로의 전직의사가 있는 위생담당 공무원의 전직 이유로는 승진기회의 부족이 23.9%로 가장 높았고,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다 22.5%, 징계 받을 기회가 많다 21.6%, 업무량이 많다 10.8%,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10.4%, 낮은 귀가로 가정이 등한시된다 5.9%의 순이었다. 전직 이유로 위생과 근무 공무원은 승진기회의 부족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응답한 반면, 보건소 근무 공무원은 징계 받을 기회가 많다고와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데 대한 이유가 많아 근무처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p < 0.01$ , 표 7).

〈표 6〉 위생담당 공무원의 직무만족도

단위 : %

	보건소 (n=129)	시·군·구청 (n=227)	광역시·도청 (n=26)	계 (n=382)
업무에 대한 금지				
보람과 금지 느낌	31.8	29.5	11.5	29.1
그저 그렇다	55.0	56.8	65.4	56.8
보람과 금지 못 느낌	13.2	13.7	23.1	14.1
타 부서에 비한 업무량*				
매우 많다	19.4	9.3	-	12.0
많다	56.6	44.9	26.9	47.6
비슷하거나 적다	24.0	45.8	73.1	40.4
타 부서로 전직의사				
매우 많다	28.6	22.0	15.4	23.8
많다	38.8	35.7	19.2	35.5
그저 그렇다	18.6	28.2	38.5	25.7
적다	14.0	14.1	26.9	15.0
계	100.0	100.0	100.0	100.0

\*  $P < 0.01$

〈표 7〉 타부서로의 전직의사가 있는 위생담당 공무원의 전직이유

단위 : %

순위업무명	보건소 (n=87)	시·군·구청 (n=131)	광역시·도청 (n=9)	계* (n=227)
승진기회 부족	10.4	32.1	33.4	23.9
사회의 부정적 시각	28.7	18.3	22.2	22.5
징계받을 기회 많음	29.9	17.6	-	21.6
업무량이 많음	16.1	8.4	-	10.8
적성에 맞지 않음	5.7	13.0	22.2	10.4
낮은 귀가	5.7	5.3	11.1	5.9
기타	3.5	5.3	11.1	4.9
계	100.0	100.0	100.0	100.0

\*  $P < 0.01$

## 2.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에 대한 태도

시·군·구청과 광역시·도청 위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41.1%는 지역보건법상 위생업무가 보건소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보건직이 아닌 공무원, 직급이 8급 이하인 공무원, 그리고 면허·자격이 없는 공무원들의 인지도가 낮았다( $p < 0.05$ , 표 8).

위생업무 담당을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보건소로 옮긴 후 14.4%는 업무에 대한 공지가 높아졌다고 하였고, 20.0%는 낮아졌다고 응답하여 업무에 대한 공지가 낮아졌다는 응답이 약간 많았으나, 전체적으로는 부서이동에 따른 업무공지의 변화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업무에 대한 공지변화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 대졸 이상에서 업무에 대한 공지가 낮아졌다는 응답이 33.3%로 높았다( $p < 0.05$ ). 옮긴 것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23.2%, 불만족이 22.4%, 보통이 54.4%로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응답이 비슷하였다(표 9).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보건소로 위생업무가 이관된 후 업무의 변화정도는 64.8%에서 업무에 변화가 없었다고 답하였으며, 26.4%에서 약간 있었다, 그리고 8.8%만이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시보건소와 군보건소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표 10).

〈표 8〉 위생과 근무 공무원의 지역보건법내 위생업무 명시 인지도부  
단위 : %

	인 지	미인지
근무처*		
광역시·도청	73.1	26.9
시·구청	54.2	45.8
군청	73.0	27.0
성		
남	59.4	40.6
여	55.9	44.1
연령		
≤34	51.9	48.1
35-39	58.0	42.0
40-44	63.2	36.8
45≤	60.7	39.3
결혼상태		
기혼	60.2	39.8
미혼	33.3	66.7
학력		
고졸	52.1	47.9
전문대졸	68.6	31.4
대졸이상	55.3	44.7

(계속)

	인 지	미인지
<b>직렬**</b>		
보건직	68.0	32.0
행정직	35.3	64.7
별정직	40.4	59.6
기 타	16.7	83.3
<b>직급*</b>		
6급 이상	67.5	32.5
7급	67.9	32.1
8급 이하	51.1	48.9
<b>위생업무능력(년)</b>		
<2	46.9	53.1
2-5	62.5	37.5
6-10	58.4	41.6
10 <	67.3	32.7
<b>면허·자격유무**</b>		
없음	50.0	50.0
있음	67.4	32.6
계	58.9	41.1

\* P<0.05, \*\* P<0.01

<표 9> 보건소 근무 공무원의 위생업무 이관에 대한 업무금지와의 만족도  
단위 : %

	업무에 대한 금지			옳긴 것에 대한 만족도		
	높아짐	비슷함	낮아짐	만족	보통	불만족
<b>근무처</b>						
시보건소	12.3	64.4	23.3	20.8	52.8	26.4
군보건소	17.3	67.3	15.4	26.4	56.6	17.0
<b>성</b>						
남	14.0	65.1	20.9	27.1	49.4	23.5
여	15.4	66.7	17.9	15.0	65.0	20.0
<b>연령</b>						
≤34	12.2	68.3	19.5	22.5	55.0	22.5
35-39	12.5	71.9	15.6	21.9	53.1	25.0
40-44	17.6	52.9	29.5	26.5	44.1	29.4
≥45	16.7	72.2	11.1	21.1	73.7	5.2
<b>결혼상태</b>						
기혼	14.4	64.4	21.2	21.8	54.6	23.6
미혼	14.3	85.7	-	50.0	50.0	-

(계속)

	업무에 대한 긍지			옮긴 것에 대한 만족도		
	높아짐	비슷함	낮아짐	만족	보통	불만족
<b>학력</b>						
고졸	22.5	55.0	22.5	21.4	57.2	21.4
전문대졸	13.5	76.9	9.6	30.0	52.0	18.0
대졸이상	6.1	60.6	33.3	15.2	54.5	30.3
<b>직렬</b>						
보건직	14.9	66.0	19.1	24.2	52.6	23.2
행정직	-	100.0	-	-	100.0	-
별정직	15.8	52.6	31.6	21.1	52.6	26.3
기타	12.5	75.0	12.5	28.6	57.1	14.3
<b>직급</b>						
6급 이상	13.0	56.5	30.5	21.7	52.2	26.1
7급	13.2	73.7	13.1	23.1	59.0	17.9
8급 이하	15.6	64.1	20.3	23.8	52.4	23.8
<b>위생업무경력(년)</b>						
<2	19.4	69.4	11.2	19.4	66.7	13.9
2-5	6.9	75.9	17.2	30.0	46.7	23.3
6-10	11.9	61.9	26.2	19.5	51.2	29.3
10<	22.2	50.0	27.8	27.8	50.0	22.2
<b>면허·자격유무</b>						
없음	12.5	72.5	15.0	15.4	64.1	20.5
있음	15.2	62.4	22.4	26.7	50.0	23.3
계	14.4	65.6	20.0	23.2	54.4	22.4

<표 10> 시·군 보건소별 위생과에서 보건소로 위생업무가 이관된 후 업무의 변화정도  
단위 : %

	시보건소	군보건소	계
<b>업무의 변화정도</b>			
많음	11.1	5.7	8.8
약간	25.0	28.3	26.4
없음	63.9	66.0	64.8
계	100.0	100.0	100.0

## IV. 고 찰

위생업무는 초창기부터 1976년까지 보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시·군·구청에서 관장하여 왔었다. 1995년 기존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보건 위생 체계를 이룩하고자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업무를 다시 보건소의 업무로 명시하게 되었다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8). 그러나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문제는 자치단체 의회에서 의결을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였다. 이에 시·군·구청에 근무하는 위생담당 공무원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위생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실태, 직무만족도, 위생과의 보건소 이관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위생담당 공무원의 직렬은 보건직이 72.3%로 가장 높아 이인수 등(1992)의 조사 때보다도 보건직의 비율이 높아졌으나, 별정직과 행정직도 각각 18.6%, 5.5%로서 아직도 위생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면허·자격을 소지한 위생담당 공무원이 56.8%였는데 이는 현재 기술직 공무원의 채용조건에 면허·자격의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특히 시·군·구청 위생담당 공무원은 면허·자격 소유율이 48.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생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기술직 공무원의 채용시 관련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응시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위생담당 공무원의 일평균 업무시간은 8.9시간이었으며, 이 중 위생업무 담당시간은 7.4시간으로 업무시간의 83.3%를 위생업무에 투입한다고 하였는데, 보건소 근무 위생담당 공무원이 시·군·구청 위생담당 공무원에 비해 위생업무 투입비율이 높았다.

위생담당 공무원들이 하루 업무 중 세부 위생업무에 투입하는 시간 비율은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등의 순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업무 투입시간 비율은 보건소가 18.4%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도청이 2.4%로 가장 낮았으며,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업무에 대한 투입시간 비율도 보건소가 8.5%로 다른 근무처에 비하여 높았다. 반면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과 식품위생행정의 종합기획 업무에 대한 투입시간 비율은 광역시·도청이 다른 근무처에 비하여 높았다. 위생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로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업무, 식품위생행정의 종합기획,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의 순으로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가 달랐다.

위생업무 투입 시간비율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이 6.3%로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15.1%,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의 14.4%보다 아주 낮은 비율이었으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에는 1순위로 44.1%가 응답하여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의 13.2%보다 월등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식품위생행정의 종합기획 업무는 세부 위생업무 중 10번째로 업무시간을 투입하고 있었고, 전체 위생업무에 대한 투입시간 비율은 3.8%에 불과하였으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위생업무에서는 13.4%가 1순위로 응답하여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업무로 응답하였다. 또한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도 실제 수행정도는 미약하였으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향후 위생업무 추진에 있어서의 정책입안시 이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위생업무 5가지는 모두 식품위생업무에 속하는 것이었다. 과거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생업적이었지만 경제성장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외식의 기회가 많아지게 됨으로서 문화생활 관련 소비지출 중 외식비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며(한국음식업중앙회, 1995), 최근 세균성 이질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기대가 증대됨에 따라 식품위생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1985년에서 1989년에 보건사회부에 보고된 식중독 발생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시단위 이상의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의 원인 식품취급 장소 중 64.3%가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식품접객업소였고, 그 중 규명된 병원체의 90% 이상이 세균성이므로 비위생적인 업소의 시설과 조리과정의 부주의로 인한 식품오염에 기인된 것으로 짐작된다(홍중해, 1991). 외식산업의 성장은 식품산업의 발전과 연결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일부 대규모 식품접객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시설, 경영, 서비스 면에서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단순히 양적인 증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식품접객업소의 질적인 낙후성은 결과적으로 비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게 되어 식품매개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김선택 등, 1998). 따라서 식품위생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는 위생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생담당 공무원이 생각하는 위생업무의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의 미약(40.9%), 단속업무 위주(26.4%), 인력부족(19.1%)의 순으로 지적하였고, 위생업무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유 위생업무 충실이 70.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위생업무가 되기 위하여는 퇴폐·변태영업 단속, 영업시간 위반 단속(현재는 일부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졌으나 조사 당시에는 영업시간 규제가 있었음) 등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미약한 위생업무에 치우쳐 있는 것을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등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고유의 위생업무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김진삼 등(1994)은 가장 시급한 보건소의 과제는 전문인력을 포함한 인력의 확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인력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담당하고 있는 위생업무에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29.1%, 그저 그렇다는 56.8%로서 이인수 등(1993)이 조사한 결과인 보람이 있다 32.0%, 보통이다 51.2%와 비슷하였다. 타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는 응답이 59.6%로 위생담당 공무원은 타 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보건소 근무 위생담당 공무원이 타 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타부서로의 전직의사가 있는 위생담당 공무원은 59.3%로 비교적 높았는데, 전직이유로는 승진기회의 부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의 부정적 시각, 징계를 받을 기회가 많다는 순이었다. 이인수 등(1993)은 위생담당 공무원의 전직의사 79.8%, 전직이유로는 승진기회의 부족, 가정생활 지장의 순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이인수 등(1993)이 조사할 당시에는 범죄와의 전쟁으로 위생담당 공무원이 심야영업단속 업무에 치중할 때였기 때문인데, 이후 심야영업 단속업무가 줄어들어 업무의 과중과 생활의 불규칙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국민의 공복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지만(강성원, 1983), 전통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게 인식된 것(박동서, 1979)과는 달리 낮은 보수와 승진기회의 부족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이재태, 1982). 일반적으로 직업적 긍지는 능력발전과 봉사동기에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임문혁, 1984), 효과적인 역할 수행과 전문직 발전에 영향을 주며(White, 1973), 또한 직무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업무의 질과 종사의욕, 그리고 사명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양경수, 1977)고 하여, 위생담당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 많은 승진기회의 부여, 고유의 위생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공무원의 직렬을 재조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임승빈, 1979)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생담당 공무원을 식품위생직으로 직렬을 재조정 하는 것이 위생담당 공무원의 전문성향상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바람직한 위생업무 관장기관으로는 51.6%가 위생과로 응답하였고 25.4%가 보건소라고 응답하였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위생담당 공무원도 위생과에서 위생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는 위생업무 중 허가 및 신고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허가 및 신고를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도 민원처리를 해야



하므로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담당할 경우 보건소와 시·군·구청을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생기게 된다. 특히, 보건소와 시·군·구청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민원이나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건소는 많은 직렬이 같이 근무하므로 직렬간의 조화를 이루기 힘든 것도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위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41.1%가 지역보건법상 위생업무가 보건소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관련 법률의 변화를 관계 공무원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자체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소의 위생업무 담당으로 옮긴 후 14.4%가 업무에 대한 긍지가 높아졌다고 하였고, 20.0%는 낮아졌다고 응답하여 부서이동에 따른 업무긍지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옮긴 것에 대한 만족도도 만족 23.2%, 불만족 22.4%로 별 차이가 없었다.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보건소로 위생업무가 이관된 후 업무의 변화정도는 64.8%가 변화가 없었다고 답하였으며, 8.8%만이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업무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생업무를 시·군·구의 위생과에서 보건소로 이관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의결을 하여야 할 사항인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역현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병익 등, 1990). 따라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적극적인 자문 등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 문제가 조직만 변화시키는 행정의 낭비 요소가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방향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지금까지 위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퇴폐·변태영업 단속, 영업시간 위반 단속 등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미약한 업무에 치우쳐 있던 것을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인 유통식품관리, 제조업소 지도점검, 집단급식소 관리,接客업소 음용수관리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등의 업무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위생담당 공무원들의 식중독 예방업무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시 보건업무와 연계하여 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업무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전문교육 실시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생업무 담당 공무원은 인·허가업무가 전체 위생업무의 1/5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 수당제의 신설 등으로 실제 업무수행에 개인경비가 소요되는 불합리를 시정해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위생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고유의 위생업무를 수행토록 함과 동시에 면허·자격소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의 식품위생직으로 직렬 재조정과 기술담당제 신설등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사기진작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상준 등(1998)은 도시보건소 공무원들의 조직몰입도는 심리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고 있어, 위생담당 공무원들의 자부심과 명예감을 높이는 의식구조의 개선과 새로운 가치관의 주입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환원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위생업무를 보건소의 업무로 이관하지 않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위생 담당 공무원조차도 보건소보다는 시·군·구청 위생과를 더 바람직한 위생관장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생업무가 실질적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고 담당 조직만의 변화는 오히려 행정의 낭비 요소만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건위생 행정체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광역시·도청과 시·군·구청에 근무하는 위생담당 공무원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위생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무실태, 직무만족도, 위생업무의 보건의서관에 대한 태도와 위생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전체 위생담당 공무원(289명) 중 253명과 1998년 11월 현재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된 전국 27개 보건소의 전체 위생담당 공무원(166명) 중 129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8년 12월에서 1999년 1월 사이에 우편조사를 하였다.

대상자의 일일 평균 업무시간은 8.9시간이었으며, 이중 위생업무 수행시간은 7.4시간으로 총 업무시간의 83.3%였다. 위생업무 수행시간은 보건소가 7.7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시·도청이 6.7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하루 평균 업무수행시간 중 평균적으로 해당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의 비율은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업무(15.1%)가 가장 높았고,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14.4%)가 그 다음이었다.

대상자들은 위생업무 중에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식품위생행정의 종합기획,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취소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위생담당 공무원이 생각하는 위생업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건강과 연관 미약(40.9%), 단속업무 위주(26.4%), 인력부족(19.1%)의 순이었으며, 위생업무 개선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70.2%에서 고유 위생업무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바람직한 위생업무 관장기관으로는 51.6%가 위생과, 25.4%가 보건소라고 하였다.

위생담당 공무원의 29.1%가 업무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하였고, 59.6%는 타 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하였는데, 보건소 근무 공무원이 업무량이 많다는 응답이 많았다. 59.3%가 타 부서로의 전직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타 부서로의 전직 이유로 시·군·구청 위생과 근무 공무원은 승진기회의 부족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응답한 반면, 보건소 근무 공무원은 징계받을 기회가 많다는 점과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란 이유가 많았다

시·군·구청 위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41.1%가 지역보건법상 위생업무가 보건소업무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위생과에서 보건소의 위생담당으로 옮긴 후 14.4%가 업무에 대한 긍지가 높아졌다고 하였고, 23.2%는 만족한다고 하였다. 64.8%가 위생업무 이관 후에도 업무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고 조직만 변화시켜 오히려 행정의 낭비 요소만 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위생 행정체제로 개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생업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식품위생행정의 종합기획 등의 업무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위생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사기진작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원. 지방공무원의 사기양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 1983.
- 경상북도. 조직 및 사무분장 관련 자치 법규집. 1997.
- 김병익, 배상수, 조형원. 지방의회의원들의 보건정책에 대한 인식. 보건행정학회지, 9(2) : 55-76, 1999.
- 김선택, 박재용, 감신, 한창현.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주의 위생관리지식 및 위생행정에 대한 태도.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5(1) : 79-96, 1998.
- 김진삼, 박형중, 김공현, 김병성. 지방자치체에서의 도시보건소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4(1) : 1-24, 1994.
- 대구광역시. 조직 및 사무분장 관련 자치 법규집. 1997.
-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서울. 1979.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령집. 1996. 12.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1997.

- 보건복지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1998. 5.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1998년도 식품위생감시지침. 1998.
- 양경수. 한국 임상간호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분석 연구. 중양의학, 2(2) : 201-209, 1977.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도시 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워크샷 보고서. 1993. 12.
- 이상준 김창엽, 김용익, 신영수. 도시보건소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인과용니에 고나한 연구 - 한 가설적 인과모형분석을 통해 -. 보건행정학회지, 8(1) : 52-96, 1998.
- 이인수, 박재용, 차병준. 대구·경북지역 위생계 공무원의 직무실태. 대한보건협회 지, 19(2) : 100-114, 1993.
- 이재태. 직무만족변인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2.
- 임문혁. 종합병원 간호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4.
- 임승빈. 지방공무원 직렬재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 천병렬. 신매초등학교 세균성이질 역학조사. 경북대학교 의학연구소. 1998. 7. 21.
-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21세기 보건소를 위한 보건소업무 표준화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II).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8.
- 한국음식업중앙회. '95 한국의식산업년감. 1995.
- 홍종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검사항목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1.
- White CH. Job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among hospital nursing supervisors. Nursing Research, 23:30-32, 1973.